

“6년 준비한 장편 올해 출간 합니다”

2018 주목! 이 사람

〈9〉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박이수

마흔 넘어 소설 공부 시작한 늦깎이 작가

등단 첫 해 소설집 ‘부표의 전설’ 펴 내

나주에 짓고 있는 북 스테이도 오픈 예정

‘소설’을 일컬어 한 쪽 다리가 망가졌거나 유리덮개에 금이 간 탁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다. 감출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소설이라는 얘기다.

아마도 그 같은 소설의 정의는 다분히 고전적인, 낭만주의적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분히 ‘금이 간 탁자’ 같은 모습인 경우가 많다. 내밀한 상처는 삶의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부분 이면서도 오늘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다.



올해 장편소설을 출간할 예정인 박이수 작가는 “사는 동안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소설의 소중한 자양분이었다”고 말했다.

“사는 동안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지금의 소설을 쓰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나주 출신 박이수 작가(54)에게 소설을 쓴다는 것은 수다란 상처와 병증을 작품을 매개로 타자에게 진솔하게 털어놓는 행위를 뜻한다. 내면의 ‘부끄러움’을 꺼내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박이수 작가를 만났다. 광주일보 신춘문에(2014) 출신 작가라 드문드문 소식을 듣거나 행사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사실은 그동안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소설 세계를 지향하는지 소설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적지 않았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박 작가의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밤새 작품을 쓰느라 고투를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 다시 집 짓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나주 남평에 북스테이를 짓고 있는데 어찌나 힘들든지 이별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박 작가는 “설계도면을 받는일부터 골조 공사, 마무리 공사 등 매 공정마다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다”며 “누군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뭇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벌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편으로 그의 말은 소설을 쓴다는 것은 자신만의 집을 짓는 것이라는 뜻으로 다가왔다. ‘작가(作家)’라는 말은 작품

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뜻을 함의하지 않는가.

이어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하는 일에 쓸 데 없는 짓은 없다”는 말에서 소설가가 되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나 보다는 짐작이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고등학교 때 무모하게 가출을 감행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잔금들이 나무뿌리처럼 무성하게 퍼져 있듯 내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가출이 작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경 ‘소설적 상황’들과 부딪혔으리라 충분히 예상이 되었다. 지금의 싱그러움, 한때 정신적 역마로 한적한 바닷가 허름한 집에 자신을 가두기도 했던 시간은 그러한 ‘무모함’에서 기인했을 거였다.

마흔이 넘어 소설 공부를 시작했다. 잡재돼 있던 내면에 글쓰기에 대한 충동이 불일 듯 일었다. “뒤늦게 문학을 공부하느라 어려운 점은 없는가”라고 사람들이 묻는다지만, 힘든 부분은 없다고 한다. 그는 “소설 쓰기는 내게 어느 순간 숙명처럼 슬며시 충동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무모하게 받아들였다”며 “소설은 오래 전부터 튀어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며 소설에 눈을 떴다. 자신만의 ‘방’에서 나와 객관적으로 ‘공간’에 편입되면서 소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마침내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컨테이너’가 당선됐다.

당시 본심 심사를 맡은 전경린 작가는 “‘컨테이너’

는 세상의 커튼을 걷으면 보이게 되는 힘의 비극적인 균형을 불우함에 대한 연민 없이, 의미 부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드보일드하게 그려냈다”고 평했다.

박 작가는 문단에 나온 그 해에 첫 소설집 ‘부표의 전설’(문학들)을 펴냈다. ‘작가는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고전적 정의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은 온통 통증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아픈 생의 그림자를 붙잡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웃사이더들의 무정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올해는 지난 6년여에 걸쳐 써왔던 장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 여자의 ‘운명’을 다룬 소설로 노래방 도우미로 사는 미혼모의 필절한 삶을 소재로 한다. 작가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어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장 실재를 취재했다”며 “어둡고 녹록한 곳에서 마주친 여자들과 많은 소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들에게선 삶에 대한 처절한 열정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아마 그것은 쉬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내밀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들려왔다.

또한 언급했다시피 올해는 나주에 짓기 시작했던 북스테이가 완공될 예정이다. 작은 서점과 도서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넣은 작은 집이라고 한다. 세간 대신 책들뿐인 아늑한 공간에서 지인들 그리고 문우들과 차와 막걸리를 나누며 재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무모한 시작에는 반드시 그 선택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 삶이 아닌가 싶네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다큐 영화 ‘공동정범’ 25일 개봉

‘원더 휠’ 25일
‘탠저린’ 31일
‘진주 귀걸이를…’
2월 1일 개봉



▶‘공동정범’

광주극장이 다큐멘터리,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준비했다.

2009년 1월 20일, 불타는 망루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이들의 엇갈린 기억을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은 오는 25일 개봉한다. 이 영화는 ‘두 개의 문’의 후속작이자 용산참사 9주기를 앞두고 국가폭력의 흔적을 담아낸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는 망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서로의 억울한 감정들과 증오의 감정이 뒤엉켜 함께 살아남은 동료의 원한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따라감으로써 개인의 삶에 파고든 국가폭력의 또 다른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원더 휠’은 꿈처럼 환상적인 유원지 ‘코니 아일랜드’에서 만난 세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을 그린 뉴욕 빈티지 로맨스라 한

동안 유럽 배경의 작품 활동을 계속하던 우디 앨런 감독이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와 촬영했다. 1950년대 낭만이 고스란히 담긴 뉴욕 근교의 실제 유원지 코니 아일랜드를 무대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쳐보인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탠저린’은 트랜스젠더인 ‘신디’가 바람난 남자친구와 관련된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절친 ‘알렉산드라’와 함께 LA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소동극을 그린 작품이다.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속 뮤즈에 얽힌 매혹적인 사랑을 담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개봉 15주년을 맞아 오는 2월1일에 개봉한다. 17세기 문화예술의 중심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다양한 캐릭터가 펼쳐지는 매력과 결자의 탄생의 감동까지 담아 올 겨울 관객들의 심미안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별발동인’ 31번째 동인집 ‘하늘 강아지’ 출간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시 시인들을 멤버로 지난 1984년 창립된 ‘별발동인’이 최근 31번째 동인작품집 ‘하늘 강아지’(해지원·사진)를 펴냈다. 별발동인에게 동시는 “어린이의 눈과 마음이 되어 부른 노래”이자 “어른들의 숙된 마음을 동심으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이다. 아동문학을 하는 동인들로부터 이루어진 별발동인은 지난 3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아동문학 발전에 적잖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 호에는 윤상현, 이성룡, 이육근, 이정석, 조기호, 고윤자, 고정선, 공공로, 김관식, 양희성 시인

들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동인작품 깊이 읽기’에서는 이정석 시인이 공공로 시인을 다뤘다. 공공로 시인은 1999년 지방 일간지 신춘문에 시로 등단했으며 이후 ‘격포에 가면 누구나 섬이 된다’와 ‘갈대들도 일어나

아침 수화를 건넌다’ 등을 펴냈다. 이후 시인은 동시를 창작하면서 아동문학에도 적잖은 관심을 쏟아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시각예술 창작 지원 개시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시각예술 창작 지원에 착수했다. 지원은 그림 등 시각예술에 꿈이 있는 시민과 전문 예술인 두 분야로 구분한다. 시각예술 분야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광주 자치구 중 광산구가 처음이다.

사업은 ‘마을미술 프로그램’(시민), ‘전문예술인 전시활동’ 지원 두 축으로 진행된다.

마을미술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인을 꾸무는 시민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예술 동아리, 주민모임,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등이 대상으로 전문 예술인이 출강해 이론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 이와 함께 마을벽화 그리기, 마을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전시회도 돕는다. 전문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시활동 지원이 주 내용이다.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을 활용해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 전시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창작 지원에 관심 있는 시민,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촌아트팩토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접수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문의 062-960-36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